

【논문】

##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 고찰\*

최 동 호\*\*

【주제분류】 언어철학, 논리철학, 인식론

【주요어】 맥락주의, 분석적 상대주의, 인식적 양상, 맥팔레인

【요약문】 나는 이 글에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을 다룬다. 나는 먼저 논의 배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맥락주의가 어떤 주장이며, 이에 대해서 맥팔레인으로 대표되는 분석적 상대주의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차별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 글의 핵심 물음인 ‘맥락주의의 재 반론에 대해서 맥팔레인의 상대주의 즉, ‘유아론적 상대주의’가 맥락주의의 직관을 받아들여서 ‘유연한 상대주의’로 물러나야 하는가’를 묻는다. 맥락주의자 디이츠는 맥팔레인의 상대주의가 ‘무지한 판단자 반론’에 직면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맥팔레인은, 디이츠의 반론을 수용하기 위해, ‘유연한 상대주의’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의 2008년 초고에서 임시적으로 제안한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디이츠의 반론에 대해서 ‘유아론적 상대주의’가 그 모습 그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현재까지 제기된 반론에 의해서는 ‘유연한 상대주의’가 강요되지 않는다.

---

\* 본 논문에 대해 중요한 논평을 해주신 강진호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철학과 박사수료

## I. 들어가며

최근 언어철학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맥락주의와 상대주의<sup>1)</sup>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불변주의(In-variantism)와 ‘변형주의(Variantism)중 하나인 맥락주의’ 사이의 싸움은 변형주의 내부에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집안싸움으로 번졌고, 더욱 치열해 졌다.<sup>2)</sup> 양자의 대치 상황은 ‘지식 귀속’, ‘인식적 양상’, ‘미래시제 관련 표현’, ‘맛 관련 표현’, ‘미학 및 도덕적 어휘’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복잡하게 펼쳐져 있으며, 한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다른 주제들에도 역시 그대로 무리 없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나는 ‘인식적 양상’을 주제로 하는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실, 나는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중에서 어느 입장이 보다 나은 입장인지에 대한 확정된 의견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아는 한, 몇몇 의미심장한 논쟁들이 양자 사이에서 계속되어 오기는 했지만, 어느 한 쪽에 보다 호의를 갖게끔 하는 주목할만한 논증은 아직 없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상대주의에 대한 맥락주의의 어떤 반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이

1) 여기서 논의되는 상대주의는 고전적인 상대주의-주로 총체적(global) 상대주의-와는 구분되는 ‘특정주제에 대한 국소적(local) 상대주의’이며, 유럽적 전통의 그것이 아니라, 분석철학 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입장을 가리킨다. 라이트(Wright)는 이것을 ‘뉴 에이지 상대주의’라고 부르며, 카펠렌(Cappelen)과 호손(Hawthorne)은 ‘분석적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Wright(draft), Cappelen & Hawthorne(2009) 참조.

2) 불변주의에 따르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은 ‘나,’‘여기,’‘어제’ 등의 지표어(indexicals)에 국한된다. 이외의 표현들은 맥락에 상관없이 같은 의미값(semantic value)을 갖는다. 이에 반해서 변형주의는 맥락 민감성을 지표어뿐 아니라, 기타 몇몇 언어표현들에도 적용시킨다. 처음의 논쟁은 ‘주체[관심] 민감적 불변주의를 포함하는 불변주의 진영’과 ‘맥락주의 진영’ 사이의 것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주의가 끼어들면서 논의가 더욱 다채로워졌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시기에 주요 학술지들의 출판 논문을 기준으로 할 때, 논의의 무게 중심은 ‘변형주의 내부에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중 어느 입장이 경험적 자료를 더욱 더 잘 설명하는지’로 옮겨가게 되었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관련된 내용을 탐구해 보겠다. 2장에서 나는 맥락주의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상대주의의 반론은 어떤 것 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장에서 상대주의를 향한 맥락주의의 재 반론을 다루고, 4장에서 상대주의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 글의 무게중심은 3장과 4장에 있다. 즉 ‘상대주의에 대한 맥락주의의 재 반론을 상대주의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이 글은 주제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맥락주의가 어떤 주장이며, 상대주의자는 그것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보다 명확히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 긴 분량을 가진 2장은,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정리한 국내 논문이 아직 없다는 점’과 ‘2장의 내용이 3장과 4장의 논의를 위한 배경 근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2000여년전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적 주장을 플라톤이 반박한 이래로, 상대주의는 그릇된 주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왔으며, 현대 영미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에서 상대주의에 대한 반감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하지만 이런 주홍글씨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는 다양한 주제 및 영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비판 받기를 계속했다.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은 상대주의가 없었던 이유는 상대주의적 통찰 자체가 틀렸다고 보다는, 상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 내용을 충실히 채우지 못했으며, 반 상대주의자들의 반론에 만족스러운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분석적 상대주의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맥락주의의 재 반론에 상대주의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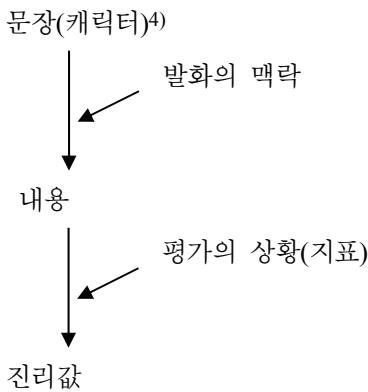
## II.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비판과 상대주의의 주장

### 1. 맥락주의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반론을 살펴 보기에 앞서서, ‘맥락주의가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우선, 맥락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주장이며, 그것이 인식적 양상에 대해 적용될 때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1) 맥락주의 일반

맥락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몇몇 맥락-민감적인(context-sensitive)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의 진리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발화의 맥락(context of utterance)-즉, 사용의 맥락(context of use)-이 관련된다’는 것이다. 맥락민감성 여부를 떠나서, 보다 일반적으로, 문장들과 발화들이 어떻게 그들의 참값을 얻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그림(표준적 카플란의 견해)은 다음이 도식화될 수 있다.<sup>3)</sup>



3) Egan(2010 draft), p. 8로부터

한 문장은, 첫 번째 예시[1단계]에서 발화의 맥락으로부터 표현된 내용에 이르는 함수를 결정하는, 캐릭터와 연관된다. 어떤 맥락-민감적인(context-sensitive) 어휘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은 불변하는(constant) 캐릭터를 가질 것이다—즉, 그것은 모든 사용의 맥락에서 같은 내용을 표현할 것이다. 반면에, 맥락-민감적인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은 발화[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일단 사용의 맥락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진리값(참/거짓)이 자동적으로 또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값의 결정에는 평가의 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 또는 데이비드 루이스가 지표(index)<sup>5)</sup>라고 부른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관여한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다”의 경우에, ‘평가의 상황’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이라면, 그것은 참이게 되겠지만, ‘평가 상황’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난 후라면, 그것은 거짓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발화의 맥락에서 진리값을 문장들에 할당하는 것은 두 단계 과정이 된다: 첫째, 발화의 맥락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장의 캐릭터에 대한 입력으로서 이용된다. 그 다음 발화의 맥락에 대응하는 평가의 상황(혹은 지표)이,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맥락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입력으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한 맥락에서의 문장, 혹은 특별한 토큰 발화의 진리값은 발화의 맥락에 두 번-첫째, 캐릭터에 대한 입력으로서, 둘째, 어떤 지표가 내용에 대한 유관한 입력으로 이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민감하다.

## (2) 인식적 양상들에 대한 맥락주의

그러면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는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앞서서, 우선 인식적 양상 일반에 대한 표준적인 의미론에 대해서

4) 문장보다는 어휘항목(lexical item)에 대해서 카플란의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캐릭터들에 근거해서, 캐릭터를 문장에 할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따라서 문장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

5) Lewis(1980)

살펴보도록 하자. ‘특수한 양상에 대한 것이 아닌, 양상 일반에 대한 의미론’에 대해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크레이저(Kratzer, 1977, 1981)<sup>6)</sup>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7)</sup> 세계  $w$ 에서 ‘양상: P’의 참은  $w$ 에 어떤 특수한 관계를 갖는 세계들  $w^*$ ( $w^*$ 는  $w$ 로부터 접근될 수 있다)에서 사물들이 P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의존한다. 다른 종류의 양상들(법칙적, 형이상학적, 의무론적, 인식적 양상 등)은 유관한 접근가능성 관계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  $w$ 에서 법칙적으로(nomologically) 가능한 것은  $w$ 로부터 법칙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세계에서 참인 것이며,  $w$ 에서 인식적으로(epistemically) 가능한(possible) 것은  $w$ 로부터 인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어떤 세계에서 참인 것이다. 여기서 ‘인식적 양상(epistemic modals)’은 다음과 같은 양상적 어휘의 인식적 사용을 의미한다; 필연적으로(necessarily), 가능적으로(possibly), 아마도(probably)와 같은 부사, 필연적인(necessary), 가능한(possible), 그럴듯한(probable)과 같은 형용사, 그리고 ‘~일 수도 있다(might, may)’, ‘~임에 틀림없다(must)’, ‘~(할)일 수 있다(could)’와 같은 조동사.<sup>8)</sup> 크레이저의 이론을 이런 인식적 양상에 적용하면, 인식적 양상은 각기 구분되는 종류의 접근가능성 관계(이것은 누군가의 인식적 상태와 어떤 연관을 갖는 것이며, 접근될 수 있는 세계는 어떤 사람 혹은 그룹이 어떤 특정한 인식적 관계를 그에 대해서 지니는 세계이다)를 제공하는 한 맥락에서 흔히 일어나는 표준적인 양상이 된다. 좀 더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이 인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현재 관점[지식-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sup>9)</sup>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P 일 수도 있다(might: P)’ 형식의 단순한 인식적 양상 문장은 참이다  
iff P가 알려진 것과 양립 가능하다.

6)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1977) 및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1981)”

7) Egan(2010 draft)에서 재인용

8) MacFarlane(2008 draft), p.1

9) Bach(2008), p.1

‘P 입에 틀림없다(must: P)’형식의 단순한 인식적 양상 문장은 참이다  
iff not-P가 알려진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지식’이 이에 관련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지식이 인식적 양상들을 사용하면서 된 주장의 참에 관련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한 화자의 지식’이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유아론적 맥락주의(Solipsistic Contextualism)’라 불릴 수 있다<sup>10)</sup>. 앞서 설명된 일반적인 맥락주의가 ‘맥락-민감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은 발화 및 사용의 맥락에 따라 다른 내용, 진리값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유아론적) 맥락주의는 발화 및 사용의 맥락을 (발)화자의 지식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르면, ‘조는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Joe might be running)’는 화자가 아는 것이 조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 참을 표현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유아론적 맥락주의는 만약 그것들이 관련된 세계들의 집합을 화자의 지식 혹은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인식적 양상들을 ‘인식적으로 가능한 세계들’에 대한 양화사들로 이해하는 이론이다.<sup>11)</sup>

이런 유아론적 맥락주의는, 맥팔레인에 따르면, 인식적 양상들에 대한 다음의 두 사실들을 설명하리라 기대된다.<sup>12)</sup> 이런 사실들은 유아론적 맥락주의의 설명이 없다면 우리를 꽤 난처하게 할 것들이다. 첫 번째, 그것은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자신의 무지에 토대를 둔 인식적 가능성 주장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설명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가 보스턴에 있을 수도 있는지’ 묻는 상황에서, 내가 그가 보스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럴 수도 있어(he might be)”라고 내가 대답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바람직하다. 이것은, 만약 ‘그는 그럴 수도 있어’의 참이 화자가 아는

10) MacFarlane(2008 draft), p.2

11) Ibid.

12) Ibid.

것에 의존한다면—즉 맥락주의가 맞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둘째, 유아론적 맥락주의는 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역설적으로 들리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한다.

- (1) 조는 보스턴에 있을 수도 있다(Joe might be in Boston), 하지만 나는 그가 보스턴에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 (2) 조는 보스턴에 있을 수도 있다(Joe might be in Boston), 하지만 그는 보스턴에 있지 않다.

유아론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1)은 모순이다: 둘째 문장이 참을 표현할 때, 첫 번째는 거짓을 표현해야 한다. 반면에 (2)는 모순이 아니다. 가능성이 현실성을 함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맥락주의는 유아론적 버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맥락주의의 비-유아론적 버전에 따르면, 유관한 지식상태는 화자를 포함하는 일련의 그룹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룹의 구성요소가 화자 개인만을 포함할 때, 그것은 유아론적이 되며, 화자와 화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또한 포함할 때, 비유아론적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적 맥락주의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여기서의 정리는 핀텔과 길리스가 ‘꾸밈없는 인식적 양상(Bare Epistemic Modals, 이하 BEM이라 칭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BEM은, 누구의 지식이 관여되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나에게는, 그것은 그럴 수 있다’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럴 수 있다’와 같이 지식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인식적 양상을 뜻한다.)

- S1: 그런 발화들은 전형적으로 단일한 명제에 대한 단언들(assertions)이다.
- S2: 이 명제가 무엇인지는 유관한 그룹에 의해서 알려진 것에 의존한다. ‘P일 수도 있다(might P)’는 P가 그 그룹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를 표현하며,

13) MacFarlane(2010 draft), pp.3-4



‘P임에 틀림없다(must P)’는 P가 모든 그런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를 표현한다.

- S3: 이 그룹의 구성은 사용의 맥락(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의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 S4: 화자가 단언의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질 때만 화자가 단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 S5: 만약 청자들이 단언의 내용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청자들이 단언을 거부하는 것은 적합하다.
- S6: 만약 그녀가 단언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화자는 단언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표준적) 맥락주의 이론들은 같은 문장의 다른 발화들이, 그들이 다른 내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서 상대주의 이론들은 이보다 더 많은 변이(variation)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주의자들은 몇몇 논증들을 통해서 맥락주의를 공격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론을 선전한다.

## 2.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비판과 상대주의적 접근

### (1)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비판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측의 반대 논증은 크게 ‘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14)</sup> 공통-내용 논증은 우리가 그들의 진리값에서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두 발화들이 결국, 같은 내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증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탈 인용적 보고 논증(disquotational reporting argument)’<sup>15)</sup>

14) Egan(2010 draft), pp.18-31

15) 탈 인용적 보고 논증은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프레드가 “밥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어(Bob might be in his office)”라고 말할 때, 청자인 프랜은 다른 사람에게 “프레드는 밥이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와 같은 탈 인용적 보고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탈 인용적 보고가 안전하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맥락주의가 맞다면, 프레드의 발화의 맥락  $c_1$ 에서 프레드의 발화는 ‘밥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_{c_1}$ (might $_{c_1}$ )있다’는 명제를 표현하고, 프랜의 발화의 맥락  $c_2$ 에서 프랜의 발화는 ‘프레드는 밥이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_{c_2}$ (might $_{c_2}$ )있다’는

및 ‘동의와 불일치에 대한 탈 인용적 귀속 논증-과오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faultless disagreement)’<sup>16)</sup>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서, 단일-발화 논증은 특별한, 토론 발화들은 다른 판단자(assessor)<sup>17)</sup>에 상대적으로 다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증으로, ‘강한 과오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sup>18)</sup>, ‘철회 논증’, ‘도청논증’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상대주의가 맥락주의를 공격하는 보다 적절한 논거가 되는 것은 후자의 ‘단일-발화 논증’이다. 이것은 ‘이 글에서 다루려는 맥팔레인의 상대주의 즉, 참[비-지표적] 상대주의(truth[non-indexical] relativism)와 달리, 다른 버전의 상대주의 즉, 내용[지표적] 상대주의(content[indexical] relativism)는 같은 상대주의이면서도 ‘공통-내용 논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sup>19)</sup>따

---

명제를 표현하게 되며, c1과 c2는 다르기 때문에 “~일 수 있다(might)”는 두 맥락에서 각기 다른 것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프랜의 보고는 실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적) 맥락주의는 탈 인용적 보고에 대한 우리의 경험자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16) 과오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은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래리가 “밥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리사가 “밥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리즈는 이것을 “래리와 리사는 밥이 사무실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일치한다”고 말함으로써 보고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런 종류의 보고가 안전하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맥락주의가 맞다면, 불일치는 없게 된다. 맥락주의를 따르게 되면, 래리는 (그의 발화의 맥락인)c1에서 말하고 있고, 리사는 (그녀의 발화의 맥락인)c2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 양자는 같은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불일치는 없게 된다. 또한 리즈의 보고 역시 이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녀는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 17) 이 글에서 ‘assessor’는 ‘판단자’로, ‘context of assessment’는 ‘판단의 맥락’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평가의 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에서 ‘evaluation’을 ‘평가’로 번역하는 것과 이것들[assess 관련 단어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 18) ‘강한 과오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은 ‘과오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에 ‘A는 그 자신의 발화가 참이라고 여기는데 옳바를 뿐만이 아니라, 상대자 B의 발화를 거짓으로 여기는데 있어서도 또한 옳바르다’는 요구조건을 덧붙인 것을 말한다. 이 요구조건이 덧붙여지게 되면, ‘과오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은 발화 참(utterance truth)을 판단의 맥락(context of assessment)에 민감하도록 하는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논증이 된다.

라서 나는 이 글에서 ‘단일-발화 논증(불일치, 철회, 도청 논증)’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불일치, 철회, 도청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한 사람이 그것을 고수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으며, 대화의 참여자들과 불일치 하는 다른 제 삼자가 대화 참여자의 이야기를 도청하고서 자신 나름의 발화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 논증은 서로 혼합되며, 각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철회 논증’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지만, ‘불일치 및 도청 논증’이 때때로 이에 끼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반론인 ‘철회논

- 19)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공격은 때로 ‘공통-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이 혼합된 형태를 취해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공통-내용 논증’은 발화 참을 판단의 맥락에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증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진 발화들이 다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는 논증이다. 상대주의 및 맥락주의 진영 내에서 ‘같은 내용을 가진 발화가 다른 진리값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입장에 비-지표적(non-indexical)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지표적(indexical)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만 대체로 용어들이 수렴해 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도식화가 가능하다(이것은 다양한 학자들이 각기 달리 이름을 붙인 것은 Dan Lopez de Sa(forthcoming)가 정리한 것을 참조로 한 것이다.)

	Indexical	Non-indexical
Contextualism	( $\neg$ )Indexical Contextualism [Standard Contextualism]	( $\neg$ )Non-indexical Contextualism [Moderate Relativism]
Relativism [Radical Relativism]	( $\subset$ )Indexical Relativism [Content Relativism]	( $\subset$ )Non-indexical Relativism [Truth Relativism]

논의 주제들을 생략한 채, 각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 $\neg$ )-드로즈(DeRose), 코헨(Cohen), ( $\neg$ )-르카나티(Recanati), 브로가드(Brogaard), 콤포(Kompa), ( $\subset$ )-카펠렌(Cappelen), 호손(Hawthorne), 웨더슨(Weatherston), 이건(Egan), 단 로페즈 드사(Dan Lopez de sa), ( $\subset$ )-맥팔레인(MacFarlane), 라셀손(Lasersohn), 쾰벨(Kölbel), 리차드(Richard) (참고적으로, ( $\subset$ )의 범주에 해당학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기 바란다.)

증'을 살펴보자.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제시된다.<sup>20)</sup>

- (a) 조지: 조는 보스톤에 있을 수도 있어 (Joe might be in Boston)
- (b) 샬리: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는 보스톤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방금 그를 아래 홀에서 봤어.
- (c) 조지: 어 정말? 그러면 내가 틀렸군.

일상에서 이런 대화의 교환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으며, 조지나 샬리의 측면에서 어떤 종류의 언어적 오류도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맥팔레인에 따르면, 맥락주의는 이런 대화를 자신의 이론 틀 안에서 매끄럽게 설명할 수 없다. 위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 보증(warrant): 어떻게 조지는 그의 첫 번째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신이 보증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가(might reasonably have thought)
- 거부(rejection): 어떻게 샬리는 조지의 주장을 부정확한 것으로 거부하는데 있어서 그녀 자신이 보증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가
- 철회(retraction): 왜 조지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의 원래 주장을 철회했어야 했는가

앞서 살펴본 표준적 맥락주의의 주장 S1에 따르면, 조지의 처음 언화 행위(speech act)는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이며, S4에 의해서 만약 그가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갖는다면 그는 보증된다. 그의 이유가 '조가 보스톤에 있다는 것을 배제할 어떤 것도 그는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것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맥락주의자는 이것을 (S2에서) 맥락적으로 유관한 그룹이 단지 조 자신이라고 간주함으로써, 그리고 조지는 그가 아는 한, 조는 보스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주장했었다고 간주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맥락주의자는 '거부'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

---

20) MacFarlane(2010 draft), p.4

면 이 명제는 샐리가 거부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맥락주의자는 ‘철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조지가 샐리의 응답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참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3때문에, 조지의 처음 주장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유관한 그룹이 고정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유관한 그룹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맥락이 아니라, 조지의 처음 주장의 맥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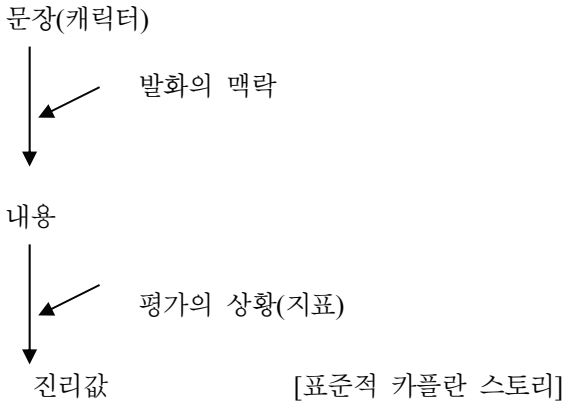
이런 어려움을 조지의 첫 번째 주장에서 맥락적으로 유관한 그룹이 샐리를 포함하는 그룹이라고 수정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즉, 비-유아론적 맥락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거부’와 ‘철회’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지만, ‘보증’을 설명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보증’의 경우에 조지가 그의 첫 번째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맥락적으로 유관한 그룹을 무한정으로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아론적 맥락주의’도 ‘비-유아론적인 맥락주의’도 보증, 거부, 철회의 경우를 모두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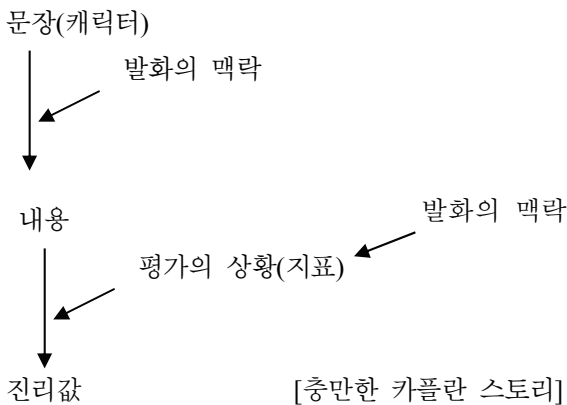
## (2) 상대주의적 접근

그러면 맥락주의의 이런 난점을 상대주의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선 상대주의가 어떤 주장인지부터 살펴보자.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는 인식적 양상 문장들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들을 (적어도) <세계, 정보상태>의 순서쌍으로부터 진리값에 이르는 함수들로 간주한다.<sup>21)</sup> 이에 따르면 여분의 매개변수(parameter)는 ‘정보 상태’이다. 발화 참이 결정되는 과정은 (앞서 제시된 바 있는 다음의) 표준적인 카플란적 그림보다 더 복잡하다고 맥팔레인은 주장한다.

21) 이하 Egan(2010 draft)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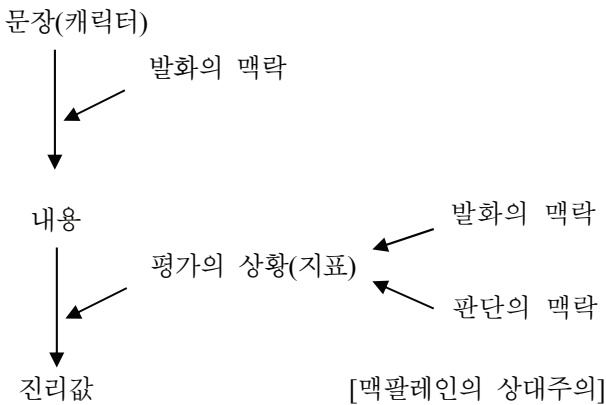


이런 표준적인 카플란의 그림에 따르면, 모든 지표들이 발화들에 대한 혹은 맥락에서 문장들에 대한 진리값을 결정하는 그들의 역할의 측면에서 동등한 것은 아니다. 발화 참(utterance truth)은 특정한 지표(맥락 C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C에서 S의 내용이 전달하는 판정(verdict)에만 단지 민감하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도표가 맥락에서 문장들의 진리값의 결정에 대한 충만한(full) 카플란적 스토리를 반영하도록 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22)



22) Egan(2010 draft), p.14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도표는, 카플란의 그림을 따라서, 맥락에서 한 문장의 진리값은 발화의 맥락에 두 번 민감하게 되는 방법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발화의 맥락이 (발화의 맥락에서의 문장의 진리값에 유관한) 지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하는 특수한 역할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맥팔레인의 상대주의 설명과 표준적인 카플란의 설명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도와준다. 맥팔레인 종류의 상대주의에 따르면, 참 혹은 거짓을 위해 C에서 S의 발화를 판단(평가)할 때, 특수한 발화의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C에서 S의 내용에 어떤 지표가 공급되는지(get fed in)를 결정하는 것은 발화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판단의 맥락(context of assessment)에 또한 민감하다. 맥팔레인에 따르면, 발화 참의 결정에 어떤 지표가 관련되는가는 부분적으로 발화의 맥락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판단의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맥락에서 문장들 혹은 특정한 발화들에 진리값을 할당하는 것과 관련된 지표를 선택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

23) Egan(2010 draft), p.15

발화의 맥락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그림에 따르면, 지표-선택은 발화의 맥락과 판단의 맥락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인(simpliciter) 한 발화의 진리값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발화의 맥락과 판단의 맥락의 쌍에 상대적인 문장의 진리값만 있거나 판단의 맥락에 상대적인 발화의 진리값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누구의 정보 상태가 유관한지에 대해서 맥락주의적 이론과 다른 종류의 변이를 허락한다. 여기서, 인식적 양상 주장들의 진리값은 판단자(assessor)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에 민감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판단자에 의해서는 참인 것으로 올바르게 판단되며, 또 다른 판단자에 의해서는 거짓으로 올바르게 판단되는 같은 발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주의에 대한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표준적 맥락주의에 대해 했던 것처럼) BEM(꾸밈없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상대주의의 주장을 정리해보자.<sup>24)</sup>

BEM에 대해서 상대주의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R1: 그런 발화들은 전형적으로 단일한 명제에 대한 단언들이다.
- R2: 이 명제는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만 진리값을 갖는다. ‘P일 수도 있다(might P)’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iff P가 그 상태에 있는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다. ‘P임에 틀림없다(must P)’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iff P가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세계들에서 참이다.
- R3: 발화의 올바름에 대해 어떤 정보상태가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의 맥락(발화가 그것으로부터 판단되는 구체적 상황)의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그 발화는 어떤 맥락들로부터 판단될 때 올바른 것으로, 그리고 다른 맥락들로부터 판단될 때 그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것이 상대주의이다)
- R4: 화자가 단언의 내용이 (그녀가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단될 때)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질 때만 화자가 단언을 하

24) MacFarlane (2010 draft), pp.7-8.



는 것이 적합하다.

- R5: 만약 청자들<sup>25)</sup>이 단언의 내용을 (그들이 차지하는 맥락들로부터 판단될 때)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청자들이 단언을 거부하는 것은 적합하다.
- R6: 만약 그녀가 단언의 내용이 (그녀가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단될 때)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화자는 단언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단언의 내용이 (그녀가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단될 때)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갖는다면 그녀는 그 단언을 고수할 수 있다.

R1은 S1과 같고 R4-R6는 S4-S6의 상대화된 버전이다. 표준적인 맥락주의로부터 상대주의가 주로 이탈된 것은 R2와 R3이다. R2는 단언된 내용이 어떤 그룹의 정보에 대한 명제라는 맥락주의의 전제를 거부한다. R2에 따르면, 내용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정보와 독립적이지만, 그것의 참은 정보상태에 상대적이다. R3는 ‘단언의 올바른 사용의 맥락의 특징들에 의존한다’는 맥락주의의 전제를 거부한다. R3에 따르면, BEM(꾸밈없는 인식적 양상)을 가진 명제의 단언은 단지 평가의 맥락(이것은 유관한 정보상태를 결정[고정]한다)에 상대적으로만 올바른 것 혹은 그른 것, 정확한(accurate) 것<sup>26)</sup> 혹은 부정확

25) 여기서 ‘청자(hearer)’가 아닌, ‘청자들(hearers)’이라는 표현을 맥팔레인이 사용했다고 해서, ‘R5가 비-유아론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 즉 판단자는 여럿일 수 있으며, 그들 각각은 그들 각자의 판단의 맥락들부터 참/거짓에 대해서 다른 판단들을 할 수가 있다.

26) 맥팔레인은 정확성(accuracy)과 참을 구분한다. 태도 혹은 언화 행위는 내용을 가지며, 이 내용은 적당하게 참 혹은 거짓으로 말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한 평가의 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에 상대적으로 참이면서 다른 평가의 상황에 상대적으로 거짓일 수 있다. 태도 혹은 언화 행위가 정확하다(accurate)고 말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것이 문제시되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이크가, 기원전 아고라에서 소크라테스가 앉아있던 정오에,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고 단언했다고 해보자. 이 단언은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이지만, 제이크의 당시의 단언은 정확했었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이에 대해서는 MacFarlane(draft), p. 11을 참조하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맥팔레인의 몇몇 논문들에서 참과 구분되는 정확성 개념이 등장한다: “Relativism and Disagreement(2007)”, “Relativism and Knowledge Attributions(forthcoming)”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주의는 앞서 제시된 ‘철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증, 거부, 철회의 세 가지 사항들은 상대주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보증(warrant): 조지가 단언한 명제, 즉 ‘조는 보스턴에 있을 수도 있다’는 명제는 조지의 맥락(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조지가 소유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에 유관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그래서 단언은, 그가 그것을 한 순간에 그에 의해서 판단될 때, 올바르며, R4는 그것이 보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거부(rejection): 조지가 단언했던 명제는 샐리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거짓이다. R5는 따라서 그녀가 그것을 거부할 자격을 갖게 한다.
- 철회(retraction): 조지가 단언했던 명제는 조지가 샐리로부터 조는 보스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운 후에 그가 갖게 된 정보에 상대적으로 거짓이다. R6는 (그가 지금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단될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그가 갖는다면, 그의 단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다.

### Ⅲ. 상대주의에 대한 맥락주의의 재 반론: 다이츠의 무지한 판단자 반론

그러면 맥락주의자들은 맥팔레인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도웰(2009 draft)과 핀텔&길리스(2008, forthcoming), 브로가드(2008)<sup>27)</sup> 등은 ‘철회 논증에 대해, 맥락주의적 이론들도 상대주의 이론만큼이나 경험적 자료들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대응한다. 그들의 대응이 얼마만큼 적절한지의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다만, ‘일부 맥락주의자의 대응에 대해서 맥팔레인은 어느 정도의 타당

27) 비록 브로가드(2008)가 지식귀속의 문제를 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자신의 맥락주의적 변형이론[관점주의]이 상대주의 못지않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철회 논증에 대해 대답하기 때문에, 그의 논증은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그런데 몇몇 맥락주의자들은 맥락주의를 상대주의로부터 방어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주의에 대한 재 반론을 곧바로 펼쳤다.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를 향한 맥락주의자들의 역 공격은 크게 도웰(2009 draft)과 ‘핀텔&길리스(2008)’에 의한 반론과 디이츠(2008)에 의한 반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도웰은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을 토대로 하여, 맥팔레인의 상대주의가 ‘유아론적 상대주의’를 벗어나서 ‘유연한 상대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맥팔레인은 도웰에 대해서는 그의 논문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MacFarlane, 2010 draft)에서도 ‘그들의 반론들에 의해서 상대주의의 유아론적 버전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서 디이츠의 반론은 유연한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맥팔레인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상대주의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의 논문(MacFarlane, 2008 draft)에서 언급한다. 나는 도웰 및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에 대한 맥팔레인의 언급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맥팔레인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의 이론을 크게 수정함이 없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주의에 대한 보다 심각한 반론으로 생각될 수 있는 디이츠의 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디이츠는 무지한 판단자 반론을 앞세워서 맥팔레인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의 반론은 공시적인 경우와 통시적인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자의 논의가 상대주의에 대해서 함축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 공시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디이츠의 반론을 살펴 보도록 하자.

[무지한 판단자 시나리오]: 골드바흐의 추측-공시적인 경우<sup>28)</sup>

나오미는 전문가로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 방법을 발견했

28) Dietz(2008), pp.250-251

으며, 디디는 비전문가로서,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해서 그다지 정통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디디의 더 나쁜 인식적 상황에 비추어 나오미의 다음과 같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술을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7)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

유아론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나오미의 진술 (7)은, 디디에 의해서 판단될 때, 거짓이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진술 (7)에 대해서, 디디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8) “그것은 거짓이다(혹은 너는 틀리다)”

하지만 우리가 디디의 인식적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나오미가 실제로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모르며,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증명이 아직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때 나오미의 진술 (7)을 디디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은 나오미의 진술 (7)이 참인지 아닌지를 열린 문제로 남겨두는 것 같다.

한편, 디이즈의 반론은 핀텔과 길리스 및 도웰의 논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판단자가 더 적게 아는 사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으며, 디이즈의 논문이 ‘무지한 판단자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디이즈의 반론을 중심으로 맥락주의의 재 반론을 살펴보지만, 도웰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잠시 언급된다.

[검사]<sup>29)</sup>

존은 작년까지 정기적으로 암 검사를 해왔지만, 만약 현재 그가 암

---

29) 이 사례는 드 로즈(DeRose, 1991)로부터 처음 나왔으며, 핀텔과 길리스(forthcoming)에 의해서 수정되었고, 도웰(2009 draft)에서 재 인용되었다.

검사를 한다면 그가 암을 가질지 아닐지를 그는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가 시행되고 의사들이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K) “나는 존이 암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를 모른다(I do not know whether John might have cancer); 단지 의사들만이 안다. 나는 검사결과가 공개되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K)는 적어도 분명히 적합하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과 관련된 것은 화자이면서 동시에 판단자인 제인의 지식일 수 없다. 제 삼자[의사들]의 지식이 여기서 개입된다. 따라서 유아론적 입장은 견지될 수 없다.

결국, 무지한 판단자 반론에 따르면, 상대주의는 무지한 판단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어긋나는 설명을 제시하며, 이것은 맥팔레인 상대주의를 배격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된다.

#### IV. 맥락주의의 반론에 대한 상대주의의 응답: 유아론적 상대주의와 유연한 상대주의

##### 1. 디이츠의 반론에 대한 맥팔레인의 대응

그러면, 이런 맥락주의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맥팔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는 2008년 논문 초고에서 디이츠의 반론에 맞서, ‘유연한 버전의 상대주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였다. 이 작업은 크게 두 번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두 번의 수정 모두 대략적인 아이디어만을 임시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쉽지만은 않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 (1) 맥팔레인의 첫 번째 수정

맥팔레인은 처음에 디이츠의 반론을 염두에 두고서, 디이츠에 의해

서 나중에 ‘맥락화된 상대주의’라 불리는 입장을 제시한다.<sup>30)</sup> 디이츠의 논증이 이야기하는 바는 만약 인식적 가능성이 관점적(perspectival)이라면, 그것은 비대칭적으로 관점적이라는 것이다. 인식적 양상 주장들의 참은 판단자에 의해서 알려진 것에 의존할 수 있는데, 단지 판단자가 원래 주장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알 때만 그렇다. 상대주의의 설명에서 이런 비 대칭성을 포착하는 한 방법은, 주장자와 판단자의 지식을 그것에 관해서 인식적 양상이 판단되어야 하는 단일한 알려진 사실들의 모임으로 통합하면서, 의미론을 복잡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때, 맥락에서 한 문장의 나타남(occurrence)에 대한 참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보일 것이다<sup>31)</sup>:

- 맥락  $C_U$ 에서 한 문장  $\Phi$ 의 나타남(occurrence)은 맥락  $C_A$ 로부터 판단될 때 참이다  
 iff  $\Phi$ 는 평가  $\langle C_U, W_{C_U}, i_{C_U+C_A}, a \rangle$ 의 모든 지점에서 참이다, 여기서
- $W_{C_U} = C_U$ 의 세계
  - $i_{C_U+C_A} = C_A$ 의 주체에 의해서 ( $C_A$ 에서) 알려진 것에 의해, 혹은  $C_U$ 의 주체에 의해서 ( $C_U$ 에서) 알려진 것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세계들의 집합
  - $a = c$ 의 영역으로부터 변항들에 이르기까지 대상들의 할당

유아론적 상대주의와 유아론적 맥락주의의 일종의 혼종(hybrid)인, 수정된 설명은 판단자가 ‘발화자가 아는 어떠한 유관한 사실들’도 다 아는 모든 경우에 대해 유아론적 상대주의에 동의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주의 설명을 동기화했던 모든 경우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혼종 설명은 난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맥팔레인에 따르면, 혼종 설명으로 전환하게 될 때, ‘혼종 설명은 인식적 양상 주장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귀결이 따르게 된다. 셀리가 (시간  $t$ 에) 다음을 말한다고 가정하자.

30) MacFarlane (2008 draft), p.39.

31) Ibid.

- (25) ‘조가 6살인 것’이 가능하다(It’s possible that Joe is six years old).

어떻게 우리는 샬리의 것과 같은 진리 조건들을 갖는 주장—모든 판단의 맥락에 상대적인 그녀의 것과 같은 진리값을 갖도록 보증된 것—을 할 수 있는가? ‘유아론적 상대주의자’에게 이런 일은 쉽다:

- (26) ‘조는 시간 t에 6살인 것’이 가능하다.

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유아론적 맥락주의자’에게도, 그것은 동등하게 쉽다:

- (27) 샬리가 t에 아는 모든 것에 대하여, 조는 t에 6살이다.

하지만 혼종 설명에 따르면, 이런 문장들 어떤 것도 모든 판단의 맥락에 상대적인 샬리의 주장과 같은 진리값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장을 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해서 발화되고 주디에 의해서 판단될 때, (26)의 참은 우리에게 의해 알려진 것에 부분적으로 의존할 것이며, 이에 반해서 (25)의 참은, 샬리에 의해서 발화되고 주디에 의해서 판단될 때 우리에게 의해서 아는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7)은 판단-민감적(assessment-sensitive)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샬리의 (25)에 대한 단언(이것은 판단-민감적이다)을 되풀이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혼종 설명에 따르면, 인식적 양상 주장들은, 한 관점으로부터 된 주장이 의미론적 상승 혹은 대응어적 장치들의 사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것에서 되풀이 될 수 없다는 매우 강한 의미에서, 관점적이다.

## (2) 맥팔레인의 두 번째 수정

맥팔레인의 ‘맥락화된 상대주의’가 디이츠의 반론을 염두에 두고서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디이츠의 논문이 출판된 이후에 맥팔레인은 자신의 이론을 보다 세련되게 수정한다.<sup>32)</sup> 맥팔레인이 생각하기에, (앞서 제시된 난점을 지닌) ‘맥락화된 상대주의’ 전략보다 더 전망이 있는 해결책은 보다 덜 맥락주의를 승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지식이 인식적 양상들의 평가에 관련되는지 그 자체는 적어도 항상 판단의 맥락의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연한(flexible) 상대주의’라 불려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판단자 자신만이 고려대상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또한 고려되며, 누구의 지식의 고려되는지가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결정된다. 맥팔레인은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sup>33)</sup>

- 맥락  $C_U$ 에서 한 문장  $\Phi$ 의 나타남(occurrence)은 맥락  $C_A$ 로부터 평가[판단]될 때 참이다 iff  $\Phi$ 는 평가  $\langle C_U, W_{C_U}, i_{C_A}, a \rangle$ 의 모든 지점에서 참이다. 여기서
- $W_{C_U} = C_U$ 의 세계
  - $i_{C_A} = C_A$ 에 관련된 정보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은 세계들의 집합
  - $a = c$ 의 영역으로부터 변항들에 이르기까지 대상들의 할당

이것은, 어떤 정보 상태가 인식적 양상들의 평가에 관련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용의 맥락이 아니라, 판단의 맥락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주의적 견해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보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커미트먼트를 하는 것을 꺼린다. 만약 그것이 항상  $C_A$ 의 주체에 의해서 소유된 정보라면, 유아론적 상대주의는 옳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항상  $C_A$ 와  $C_U$ 의 주체들에 의해서 소유된 정보의 결합이라면, 혼종 견해가 옳을 것이다. 유연한 상대주의는 어느 한쪽의 선택을 의미론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을 꺼린다. 대신에 유연한 상대주의는 ‘선택은 판단의 맥락의 특징들에 의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2) MacFarlane(2008 draft), pp.40-41

33) Ibid.



이제, 유연한 상대주의는 무지한 판단자 반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비록 어떤 경우들에 화자의 정보가 인식적 양상 주장들의 평가에 관련되기는 하지만, 이것(혹은 어떤 다른 정보)이 언제 관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자의 맥락이다. 판단의 주요한 지점이 ‘화자의 단언에 대한 비평적 평가인 맥락’에서, 관련된 정보상태는 대개 화자와 판단자의 정보의 복합물일 것이다. 그리고 ‘판단자가 그녀 자신의 탐구를 인도하려고 단순히 노력하는 맥락들’에서, 관련된 정보상태는 그녀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각 경우에, 어떤 정보가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의 맥락의 특징들이다. 그래서 이 견해는 맥팔레인에 따르면, 상대주의와 맥락주의의 혼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상대주의이다.

## 2. 맥팔레인의 대응에 대한 평가

다이츠가 말하는 반론은 상대주의에 대한 오랜 불신의 근간에 자리잡은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을 키가 작다고 놀렸을 때, 나폴레옹이 “하늘에서부터 키를 잰다면, 내가 더 크다”고 대응했다는 것을 듣고서, ‘이색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또 다른 경우가 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키는 땅에서부터 재는 것이 당연히 참이라고 전제하면서 나폴레옹 발화를 일종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며, 각각의 모든 기준[척도]들에 의해서 참들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상대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주의자가 모든 참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동가성 논제(equivalence thesis)<sup>34)</sup>에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다. 비록 상대주의가 각자의 관점에서의 참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들 참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똑같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점성술에 따르

34) Boghossian(2006) 1장에 나타나는 동가성 논제는 다음과 같다: 세상을 아는, 철저히 다르지만 “동등하게 가치를 지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한다. 과학은 이런 것들 중에서 단지 하나일 뿐이다.

면, P이고, 천문학에 따르면,  $\neg P$ 일 때, 판단 기준을 생략한 채, P인지  $\neg P$  인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뿐이다. 결코 판단 기준이 생략되었을 때, P와  $\neg P$ 가 모두 동등하게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양측은 판단기준을 생략하지 않을 때, 모두 정확할 수는 있다).

그러면 상대주의자는 이런 무지한 판단자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맥팔레인의 대응방식이 옳은 것일까? 정녕 ‘유아론적 상대주의’는 ‘유연한 상대주의’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맥팔레인의 두 대응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의 수정이 맥락주의의 반격에 두 걸음 물러났다면, 두 번째 수정은 비록 한 걸음 전진하기는 했지만, 원래의 주장으로부터 여전히 한 걸음 물러난 상황이다. 맥팔레인은 두 번째 수정대응이 보다 전망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다이즈의 반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두 번째 대응 역시 아직까지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도웰은 ‘드로즈(DeRose)와 같은 보다 초기의 맥락주의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비평가들<sup>35)</sup>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어떻게 다른 판단의 맥락들이 다른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유연한 맥락주의’가 임시방편(ad hoc)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sup>36)</sup>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서 도웰에 동의한다. ‘유연한 상대주의’가 진리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판단의 맥락의 주체에 의해서 소유된 정보’가 관계하고, 어떤 경우에는 ‘판단의 맥락과 발화의 맥락의 주체들에 의해서 소유된 정보의 결합’이 관계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론으로서의 그것의 지위는 안정적일 수 없다. 따라서 ‘유연한 상대주의’는 언제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맥팔레인의 대답처럼, 단순히 ‘화자의 단언에 대한 비평적 평가인 맥락’과 ‘판단자가 그녀 자신의 탐구를 인도하려고 단순히 노력하는 맥락들’의 구분을 통해서는 문제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 양자의 구분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 존재

35) Egan, Hawthorne, Weatherson(2005)

36) Dowell(2009 draft), p.40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론이 제시되기 전까지 상대주의는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할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맥팔레인이 그의 이론을 수정하지 않고서, 유아론적 상대주의를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즉, 유아론적 상대주의를 ‘유연한 상대주의’로 강요하는 것은 (‘화자의 단언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을 포함하는) 디이츠의 반론에 의한 것이다. 나는 유아론적 상대주의가 디이츠의 반론을 비껴가지 않고 그것에 정면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화자의 단언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에서 조차, 화자의 지식과 판단자의 지식의 결합이 아닌, 판단자의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디이츠의 반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8)과 같은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디이츠의 직관에 대한 소극적, 적극적 도전이며, 다른 하나는 ‘(7)이 참인지 아닌지를 열린 문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디이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 (1) 디이츠의 적절성 직관에 대한 소극적, 적극적 도전

우선, 디이츠가 제기하는 무지한 판단자 반론의 직관((8)에 대한 직관)이 그 자체로는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도전에 대해서 말해보자. 디이츠의 예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다음의 네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디이츠의 직관을 우리는 문제 삼을 수 있다.

첫째, 논의 주제에 따라서 무지한 판단자에 대한 직관은 달라질 수 있다. 인식적 양상 이외에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이 진행중인 다른 주제 즉, 맛의 문제에 디이츠의 예를 적용해 보기로 하자.

미식가(전문가) A: “P는 맛이 없다”

일반인(비전문가)B: “아니다, P는 맛이 있다”



(ㄱ) 과학자: “오늘날 지구에 남아있는 어떤 공룡도 있을 수 없다”

(ㄴ) 일반인: “그것은 거짓이다”

(가) 기상학자: “다음주 날씨는 예년보다 더 포근할 수도 있다”

(나) 일반인: “그것은 거짓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의 답변 (ㄴ)보다 답변 (나)가 상대적으로 보다 적합하다’는 직관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P가 참이 될 객관적 확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대화자 사이 정보상태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의 직관에 영향을 준다. 스티븐 호킹과 고등학교 물리선생이 대상이 될 때와 스티븐 호킹과 바보 영구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후자의 경우가 훨씬 무지한 판단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아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의 정보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더 많이 아는 사람의 우선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넷째, (이것은 셋째 사항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식자와 무지자 즉,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전문 수학자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수학을 상당히 잘 아는 과학자와 전문 수학자 사이에 수학적 주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누가 전문가가 되는가? 반드시 전문 수학자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지는가?

어떤 사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논리-합리성에도 근거하지만, 일반성에도 근거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직관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특정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의 견해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일상인의 상식에 더 가깝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국어의 어법에서 학자들이 ‘자장면’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짜장면’이 일상인에게 보편화된 상황에서 전자의 주장이 그것을 반드시 강요할만한 보다 합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관철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전문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에 따라서는 일상인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비록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신분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비전문가가 전문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상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좀 더 무지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디이츠의 예가 전문 수학교수와 ‘수학에 대한 정식교육을 받지 않아서 무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라마누잔 못지 않은 잠재성을 지닌 한 학생’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직관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이상과 같이 디이츠의 무지한 판단자 반론의 직관이 몇몇 유사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러면 디이츠의 예 자체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것을 최대한 디이츠의 편에 서서, 맥팔레인 상대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되도록 약간 변형해 보자. 디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나의 첫째와 둘째 반례들과 달리, 디이츠의 자신의 예는 맞에 대한 것이 아닌, 인식적 양상에 대한 것이며, P의 내용 즉,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반례가 있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부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디이츠의 예는 앞선 두 논의를 비껴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이 아는 나오미와 덜 아는 디디 사이의 지식 차이가 크며, 나오미와 디디의 전문가/비전문가 구분이 명확하다고 추가적으로 가정하면, 나의 셋째, 넷째 논의를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제시한 네 가지 경우들은 약간의 가정을 덧붙인다면, 디이츠의 직관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게다가,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는 나오미의 말에 디디가 (8) “그것은 거짓이다(혹은 너는 틀리다)”와 같이 대답한 것은,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의 문제를 두 사람이 논의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탐구하는 대화에서 디디의 대답은 이상함에 틀림이 없다.

이런 강화된 다이츠의 반론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부적절성 직관의 근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전문가 디디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데 있어서 다이츠에게 동의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나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들이 디디 답변의 부적절성을 반드시 함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다이츠의 사례가 제시된 방식 때문에 디디의 답변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해당 사례에서 나오미는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며, 디디는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접하는 제 삼자로서의 독자들[우리]은 일종의 신적인 관점에서 이런 가정들을 모두 알고 있다. 즉,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명백히 거짓을 말하고 있는 디디의 발화를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다이츠의 예를 약간 수정해 보자. 나오미가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은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했다고 그 자신은 알고 있지만, 나오미의 골드바흐의 추측 증명에 대한 논문을 나오미 몰래 읽어보고서 그것이 오류를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한 제 삼의 전문가 레미가 나오미와 디디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레미의 관점에서 디디의 발언—그것은 거짓이다(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반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미의 관점에서는 골드바흐의 추측은 증명되지도 반박되지도 않은 그대로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형된 사례를 접하는 우리 독자들 역시 디디의 발언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다이츠의 원래 사례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다이츠의 사례가 제시된 방식의 구조상의 특수성이 디디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다이츠의 결론에 동조하게끔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며, 다른

방식으로 사례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의 직관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다이츠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논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교기준에 따른 올바른 논제] 일반적으로, ‘ $\alpha$ 에 따르면, A이고,  $\beta$ 에 따르면, B이다’는 것과 ‘ $\alpha$ 가  $\beta$ 보다 더 믿을만한 기준이다’가 주어졌을 때, B보다는 A가 더 참일 확률이 높다. (여기서  $\alpha$ 와  $\beta$ 는 ‘단언의 주체’ 또는 ‘단언에 대한 이유’이다)

이것을 다이츠의 예에 적용시켜보면, 다이츠의 예에서는 나오미와 디디의 각각의 단언에 대한 이유[증거]가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우리]은  $\alpha$ 와  $\beta$ 에 각각 주체를 대입시켜서, 전문가인 나오미가 비전문가인 디디에 비해서 더 믿을만하기 때문에 디디의 발화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직관을 갖게 된다. 독자들은 일종의 ‘권위에의 호소’에 해당하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론이 일상에서 종종 바람직한 결과를 보증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있다는 것은, ‘권위에의 호소’가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들 중에서 하나라는 점에서 볼 때, 명백하다.<sup>37)</sup>

37) 한편, 위의 ‘비교기준에 따른 올바른 논제’가  $\alpha$  및  $\beta$ 에 이유가 대입되지 않고서, 주체가 대입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lpha$  및  $\beta$ 에 이유들이 대입되더라도 논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A와 B에 과학적 사실이 관계될 때와 관련된다. 공자와 관련된 일화를 변형해서 인용해 보자.

공자: “낮의 해가 저녁의 해보다 더 작게 보이니까, 낮의 해가 저녁의 해보다 더 멀단다.”

아이: “아니에요. 낮의 해가 저녁의 해보다 더 뜨거우니까, 낮의 해가 저녁의 해보다 더 가까워요.”

오늘날 지식을 근거로 할 때, 낮의 해가 저녁의 해보다 더 가깝다는 아이의 주장이 참이다. 하지만 이것이 참인 것은, 단순히 아이처럼, ‘먼 것이 덜 뜨겁다’는 기준[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구축의 기울임, 남중고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에 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주장이 참이지만, 이것은 그가 제시한 이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주장의 사실적 참 여부에 공자라는 전문가의 신빙성이 관여가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비교기준에 따른 올바른 논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을 정리해보면, 디디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직관의 근간들 중에는 ‘미리 전제된 참을 사용하는 사례제시 방식’과 ‘권위에 의 호소’라는 잘못된 선입견들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디디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디이즈의 주장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 디이즈의 주장에 이상과 같이 소극적으로 맞서는 것—즉, 디디의 답변이 부적절한 것만은 아니다—이외에, 디이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론—즉, 디디의 답변이 적절할 수 있다—은 없는가? 나는 디디의 답변이 적절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인간A: “(우리 인간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

외계인B: “(우리보다 고 지능과 문명을 가진 어떤 외계인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P가 참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서, 그리고 고등의 외계인이 인간보다 모든 판단에서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보다 무지자인 인간A의 편을 들 수도 있다. 즉 인간A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P일 수 있다’가 거짓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물론 인간A가 외계인의 기준을 어느 정도 혹은 제대로 이해해서 그 정보를 그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P일 수 있다’가 그에게 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의 단순한 대화상황에서 인간A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할 수 있다. 이것은 ‘P일 수도 있다’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만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주관적 견해의 혼합’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나는 P인지 아닌지가 객관적 사실의 문제로 대두될 때 조차, 그리고 타인의 발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조차, 주체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주관적 가능성]을 객관적 사실에 대한 발화에 개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인식적 양상 중에서 ‘~일 수도 있다(might)’의 용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그것은 다음과 같다 (각각은 배타적이지 않다).

(i) ‘~이다(is) 논의’에 대한 겸손내지는 자신 없음의 표현, 정보부족의 표현, ‘불확실성 표현’, “이럴 수도 있지”, (ii) 사실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태도 표현, “나는 이렇게 생각해”, (iii) 사실에 대한 가능성/불가능성에 커미트먼트(commitment), “그럴 수 있어! 그게 가능해(it is possible that~)”

이런 경우들 모두에서 ‘~일 수도 있다(might)’는 어떤 명제에 대한 소극적, 적극적 태도를 나타낸다. 앞서 1절 ‘인식적 양상’에 대한 대략적 정의에서, ‘인식적 양상은 필연적인’, ‘가능한(possible)’, ‘~일 수도 있다(might)’ 등과 같은 양상적 어휘들을 인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여기서 인식성의 측면, 즉 주관성의 측면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P인지 아닌지’가 사실의 문제로서 논의 중일 때도 각 개인들은 그에 대한 인식적, 주관적 태도를 각자 취할 수 있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 (7)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  
 (J) “그것은 거짓이다. 즉,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인 다음의 대화를 고려하자.  
 (7\*)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없다.”  
 (J\*) “그것은 거짓이다. 즉,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가 있다.”

여기서 (7)과 (J)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현을 포함하며, (7\*)과 (J\*)는 그렇지 않다. 위의 ‘~일 수도 있다(might)’의 용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J)가 (위의 (ii), (iii)에서처럼) 사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 그것은 (J\*)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반면에 (J)가 비록 사실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의 확실성에 대한 커미트먼트의 정도가 (ii), (iii)보다는 (i)에 더 가깝다면, 그것은 (J\*)와 그 실질적 의미가 엄연히 구분된다. 만약에

38) 하지만, 가능성 발화와 현실성 발화는 개념상으로는 명백히 분리된다.

(J)의 의미가 ((ii), (iii)에 가까운) 전자라면 그것은 디이즈의 주장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i)에 가까운) 후자라면, 그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객관적 사실문제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발화현상들에 의해서도 경험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에게 따라서 ‘~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그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확률]이 90%이상인 되어야 ‘~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반해서, 다른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확신[확률]이 50%~60%에 지나지 않을 때도 ‘~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디디가 후자 쪽의 경향이 강한 사람이며, 그의 발화의도가 사실의 확실성에 대한 커미트먼트의 정도에서 (i)에 가까운 것이라면, 디디의 (J)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디디의 답변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 측면이 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디디의 답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적절할 수 있다. 다음의 대화 상황을 고려해 보자.

두 학생 A와 B는 수학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친구이다. A는 수업을 성실히 들은 반면, B는 그렇지 않고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했다.

- A: (7)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
- B: (8) “그것은 거짓이다(혹은 너는 틀리다)”
- A: (9) “이러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 너는 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느냐?”
- B: (10) “그렇구나, 내가 했던 말-(7)-이 맞고, 내가 했던 말-(8)-은 틀렸다. 나는 (8)을 철회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했던 말-(8)은 적어도 정확했어.”

이 경우에 B의 (8)은 적절할 수 있다. 만약에 A가 (9)에서와 같이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반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했다면, B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B 나름의 이유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A의 이유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B가 (8)과 같이 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sup>39)</sup>

(2) 디이즈의 열린 문제 주장에 대한 반박

이상과 같이 무지자의 인식적 양상을 포함한 대답은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디이즈의 직관은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은 ‘화자의 단언에 대한 비평적 평가인 맥락’에서도 유아론적 상대주의로 또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39) 이것을 [검사] 사례에 적용해 보자. ‘존이 암을 가지는지 여부’가 객관적 사실로 문제가 될 때 의사의 지식이 그것의 참/거짓에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평상시에 존이 위장장애를 가지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목격해왔던 그의 지인은 그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존은 암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의사가 그것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판단자에게 참이 되며, 그는 정확한 발화를 한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다).

한편, 여기서 다음을 비교해 보자.

제인( $\neg$ ): “나는 존이 암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를 모른다(I do not know whether John might have cancer)”

제인( $\neg^*$ ): “나는 존이 암을 가졌는지 아니었는지를 모른다(I do not know whether John had cancer)”

상대적으로 제인( $\neg$ )은 가능성에 대한 앎을 표현하며, 제인( $\neg^*$ )은 사실에 대한 앎을 표현한다. 앞선 골드바흐의 추측 (7)과 (7\*)의 비교에 가능성과 사실의 구분만이 적용되었던 것과 비교해서 여기서의 예는 좀 더 복잡하다. 만약 나의 주장대로 ‘인식적 양상에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주관적 가능성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종속절의 차이가 전체의 의미에서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속절을 받는 ‘안다(know)’ 역시 인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거칠게 말해서, ‘주관성과 주관성[종속절]의 결합’과 ‘주관성과 객관성[종속절]의 결합’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40) 한 익명의 심사위원은 나의 이러한 답변들이 디이즈의 반례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논평했다. 비록 나의 주장처럼 유아론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디지가 (8)을 올바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디이즈의 주장은 그가 상정한 경우 즉, 제 삼자적,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8)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며, 이것으로 디이즈의 반례는 여전히 상대주의에 위협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고려하는 다양한 상황은 디이즈의 반례의 힘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심사위원의 논평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일면 타당하며, 현재

그런데 우리는 이상과 같이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8)과 같은 반응이 부적절하다’는 디이즈의 직관에 대한 도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7)이 참인지 아닌지를 열린 문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디이즈의 주장을 또한 반박할 수 있다. 과연 디이즈의 주장대로 우리가 디디의 입장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르겠다’는 대답이 강요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을 비교해 보자.

A: (7)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

B: (8) “그것은 거짓이다(혹은 너는 틀리다)”

이에 반해서,

B: (8\*) “나는 잘 모르겠어”

디이즈는 이런 상황에서 B가 (8\*)처럼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8)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8\*)와 같이 B가 대답하는 것을 상대주의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B는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그가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일수도 있다(might)’와 관련된 주장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근거가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전문가가 더 잘 알 것이라는 것 못지않게 내 자신이 그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될 수

---

의 나의 논점이 디이즈의 반론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자비의 원리(principle of charity)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인식적 양상과 관련된 가능성은 순수 객관적인 측면일 수 없으며, 반드시 주관적 측면과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다른 형이상학적 가능성 및 규범적 가능성으로부터 인식적 양상이 구분되는 주요한 측면이다. 디이즈의 주장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특정 견해를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나는 순수히 디이즈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기를 소홀히 했었다. 나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식적 양상과 관련된 가능성이 주관적 측면을 항상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증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지면상의 제한을 이유로 들어 추후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날 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있다.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무지의 근거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다른 사람에 두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국 B는 (8)과 (8\*) 모두를 그 자신의 대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디이츠가 제기하는 반론은 유아론적 상대주의에 큰 치명타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맥팔레인이 스케치한 아이디어 대로 유연한 상대주의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주장한대로 ‘유아론적 상대주의’가 맥락주의의 재 반론에 제대로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우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주의는 맥락주의의 재 반론을 막아내기만 했을 뿐이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서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각자의 이론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양자는 서로에게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셈이다. 나는 이 글에서 ‘유아론적 상대주의’를 방어하기는 했지만,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입장 중에서 어느 한 쪽에만 호의적이지는 않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중에서 어느 입장이 보다 올바른지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탐구를 필요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별로 그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 갈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는 상대주의가 경험적 자료들을 더 잘 설명하지만, ‘도덕적 용어’에 대해서는 맥락주의가 경험적 자료들을 더 잘 설명할 수도 있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투 고 일: 2011. 01. 21.  
심사완료일: 2011. 02. 06.  
게재 확정일: 2011. 02. 07.

최동호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

- Bach, Kent (forthcoming), "Perspectives on Possibilities: Contextualism, Relativism, or What?", in *Epistemic Modality*, Andy Egan and Brian Weatherso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 Boghossian, Paul (2006), *Fear of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 Brogaard, Berit (2008), "In defense of a perspectival semantics for 'know'",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86, No.3, pp.439-459.
- Cappelen, Herman & Hawthorne, John (2009), *RELATIVISM AND MONADIC TRUTH*, OXFORD PRESS.
- Dan Lopez de Sa (forthcoming), "The Many Relativisms: Index, Context, and Beyond",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Relativism*, Blackwell.
- DeRose, Keith (1991), "Epistemic Possibilities", *Philosophical Review* 100, pp.581-605.
- Dietz, Richard (2008), "Epistemic Modals and Correct Disagreement", in *Relative Truth*, Manuel.
- Garcia-Carpintero and Marx Kölbel, eds.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9-262.
- Dowell, J.L. (2009 draft), "A Flexibly Contextualist Account of Epistemic Modals"
- Egan, Andy (2007), "Epistemic Modals, Relativism, and Assertion", *Philosophical Studies* 133:1-22.
- \_\_\_\_\_ (2010 draft), "Relativism about epistemic modals"
- \_\_\_\_\_, John Hawthorne and Brian Weatherson (2005), "Epistemic Modals in Context", in *Contextualism in Philosophy*, Gerhard Preyer and Georg Peter, eds., Oxford University Press, pp.131-170.
- Von Fintel, Kai and Gillies, Anthony (2008), "CIA Leaks", *Philosophical*



*Review* 117:1, pp. 77-98.

- \_\_\_\_\_ (forthcoming) “‘Might’ Made Right”, forthcoming in *Epistemic Modality*, Andy Egan and Brian Weatherso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 Kratzer, Angelik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pp.337-355.
- \_\_\_\_\_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to Word Semantics*, ed.H.J. Eikmeyer and H.Rieser, pp.38-74. Berlin: de Gruyter. Reprinted in *Formal Semantics: the Essential Readings*, ed. P. Portner and B.H. Partee, 2002. Oxford: Blackwell.
- Lewis, David (1980), “Index, Context and Content”, In *Philosophy and Grammar*, Stig Kanger and Sven Ohman, eds., D. Riedel. Reprinted in *David Lewis, Papers in Philosophical Log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44.
- MacFarlane, John (2004 draft), “Epistemic modalities and relative truth”
- \_\_\_\_\_ (forthcoming), “Relativism and Knowledge Attributions”, in *Routledge Companion to Epistemology*, ed. Sven Bernecker and Duncan Pritchard, London: Routledge.
- \_\_\_\_\_ (2007), “Relativism and Disagreement”, *Philosophical Studies* 132, pp.17-31.
- \_\_\_\_\_ (2008 draft), “Epistemic Modals Are Assessment-Sensitive”, in *Epistemic Modality*, ed. Brian Weatherson and Andy Ega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draft), “Epistemic modals: relativism vs. cloudy contextualism”
- \_\_\_\_\_ (draft), “Varieties of Disagreement”
- Wright, Crispin (draft), “NEW AGE RELATIVISM AND EPISTEMIC POSSIBILITY: THE QUESTION OF EVIDENCE”

ABSTRACT

## Inquiry into Debates between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about Epistemic Modals

Choi, Dong-Ho

In this paper, I deal with debates between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about Epistemic Modals. First, in order to explain related background knowledge, I examine Contextualism and Relativism's objection to it. Then, I ask whether Solipsistic Relativism should go flexible by Dietz's objection. Relativist, MacFarlane makes a rough sketch of 'Flexible Relativism' to avoid Contextualist, Dietz' objection in his 2008 draft. But I claim that Solipsistic Relativism can be hold without changing into flexible version. Flexible Relativism is not obliged by at least present objection.

**Keywords:** Contextualism, Analytic Relativism, Epistemic Modals, MacFarlane